

SUNBO NEWS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 소식

창립 34주년 기념식 개최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새시대를 준비하자



지난 7월 1일 선보공업 본사 및 각 공장에서 창립 34주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본사 과장급 이상 임직원, 공장별 팀장 이상 임직원 및 협력사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사가 제창에 이은 '선보인의 윤리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선보패밀리상, 협력사 우수사원상, 우수사원상, 모범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을 이어갔다. 올해는 협력사 우수사원 18명을 포함하여 총 50명의 임직원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어진 최급식 회장의 34주년 창립기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보패밀리에게 전하는 네 가지의 당부의 말이 핵심이었다.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한 당부부터 34년 조직문화의 개편을 가져올 '스마트 선보', 중장기 비전 재정립, 자기 역량 개발 등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도전정신이 필요함을 역설한 네 가지 당부의 말은 선보패밀리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첫째,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 합시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작업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소독, 교육 홍보와 청결한 근무환경 유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에도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스마트 선보'를 만들어갑시다.

우리 조직문화는 지난 34년간의 역사와 함께 고정관념과 관행, 습관으로 고착화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입사 2년 미만의 사원 및 계장 등 선보의 젊은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방법을 개선

하고 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똑똑한 일하기 문화'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세대가 선보 변화의 축이 되어 말로만 스마트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선보가족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 2025 비전의 재정립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명품 모듈로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브랜드 선보'라는 기업 비전 아래 2020년 목표달성을 위한 3대 전략방향, 8대 전략과제, 24개 실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PLUS 2020'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임과 동시에 2025 중장기 비전 구축을 위한 사업부문별 포트폴리오 재정립 및 중장기 전략수립의 중차대한 해이기도 합니다. 전사 각 부서장은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적극 동참하여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글로벌 역량 및 자기개발을 강화합시다.

급격한 기술진보와 글로벌화로 자기개발과 외국어 능력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자신의 업무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목표관리수첩'을 적극 활용하여 회사와 개인의 목표를 더욱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기 바랍니다.

공로상 상금 100만 원 /공로패	김충식 이사 정제현 이사 조정욱 부장 유무성 부장 표종원 부장 김형섭 과장
모범상 상금 50만 원 /상패	정상규 선임팀장 박춘복 팀장 정남교 팀장 오세준 차장 이형재 차장 권순창 과장 최동욱 과장 이경식 기원 김도영 대리 이윤혜 사원
우수사원상 상금 30만 원 /상장	김수환 팀장 김창영 팀장 명철환 팀장 박정길 팀장 이경욱 과장 이철호 과장 김영민 대리 여재혁 대리 빈창민 계장 오진우 주임 강은지 사원 김자영 사원 양수원 사원 이상희 사원
협력사우수사원상 상금 30만 원 /상장	박영호 반장(재경공업) 김용호 사원(창선ENG) 정재희 팀장(SUS ENG) 김범동 차장(우원기업) 김대봉 팀장(진양기업) 박정환 차장(DP ENG) 박태일 부장(대양B&P) 현명환 사원(태산ENG) 박상준 직장(유승산업) 황윤욱 차장(대성기업) 이용석 조장(유승산업) 박지원 반장(마린스텝스) 수 궁 (하림테크) 공대성 반장(태호산업) 손대석 반장(태호산업) 이용우 반장(SJ테크) 허승환 반장(대성테크) 박명관 조장(현영)
선보패밀리상 1박 2일 숙박권+ 여행경비 50만 원 /상장	박상계 부장 최순찬 부장

방문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

7월 9일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 일행이 당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부산지역 우수중소기업 생산현장 시찰 및 경제침체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오전 11시경 선보유니텍 구평1공장에 도착한 일행은 공장투어를 통해 고압 Compressor SKID 및 Re-Gasification Module을 둘러본 후, 선보공업 2공장으로 이동하여 LNG 연료공급장치와 재액화 장치(PRS, MRC3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친환경 시대를 대비해 선보가 마련해온 기술 및 미래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본사 홍보관에서 회사 소개를 듣고 점심식사 후 한 시간가량 티타임을 곁들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급식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생산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하는 한편,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 지역의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의 이번 방문이 유의미한 지원으로 이어져, 경제침체에 빠진 생산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한다.



회사 소식

스마트 오피스 시대, 화상회의실 구축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사망자 및 경제 침체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한편, 기존 생활 패턴을 뒤흔드는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실효성 면에서 아직은 낮설게 느

껴지던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와 같은 스마트 오피스 시대를 좀 더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그중 하나이다. 화상회의는 먼 곳에 있는 지사 직원이나 외근 중인 직원도 시공간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이동 시간을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회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자료 인쇄나 공유 같은 번거로운 과정까지 줄일 수 있어, 직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불필요한 출장을 줄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원가 절감 역시 가능하다. 최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업무 시간을 줄이면서 기존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일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러한 화상회의 도입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처럼 중요성과 효율성 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실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이다. SMART SUNBO TFT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대면회의에서 비대면 회의로 빠르게 변화하는 회의문화에 발맞추어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였다.

선보공업 첫 번째 화상회의실은 선보의 공장 중 가장 회의가 많이 열리는 본사와 구평1공장에 마련되었다. 본사는 기존 상담실을 화상회의실로 바꾸었다. 화상회의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각 공장별 계정을 생성하였다. 외부 업체와 미팅 역시 많은 관계로, 블라인드와 가구도 통일하여 배치하였다. 구평1공장 화상회의실은 회의실 옆 품질문서고를 대상지로 정하고, 이를 정리하여 화상회의실로 탈바꿈하였다. 기존 서류들을 정리하여 옮긴 뒤 본사와 동일한 장비, 블라인드, 가구로 선보Family만의 통일성을 구축하였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기존의 고정관념과 관행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당장은 조금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이 같은 의미 있는 변화들은 미래시대를 대비한 선보의 자산이 될 것이다. 스마트 선보 TFT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한다.



- ▶ 화상회의실 위치: 본사 3층 상담실/구평1공장 2층 품질 문서고
- ▶ 화상회의실 이용 예약: ERP 회의실 예약 후 사용

- ▶ ZOOM & SKYPE 계정 및 사용방법: 각 화상회의실 책상 밑에 매뉴얼 배치
- ▶ 화상회의실 이용 TIP: 화상회의 시 블라인드를 내려 사용, 평소에는 블라인드 오픈하여 유지

납품

Liquefaction Module 납품



7월 9일, 선보유니텍 구평1공장은 삼성중공업 공동설비에 설치되는 액화 모듈(LQM, Liquefaction Module)을 납품하였다. 제품은 해상에서 LNG를 생산할 수 있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 LNG)의 핵심 장비로, LNG를 액화하여 저장을 가능하도록 한다.

구평1공장은 이 제품의 상세 설계, 제작, 조립, 운송, 설치, 그리고 Yard connection까지 맡아 진행하였다. 오는 7월 31일까지 Site의 배관 및 전장 작업을 문제가 없이 마무리하여 계약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06월 10일 수주받아 납품까지 1년여가 소요된 이 제품이 납품되기까지 사/도급 자체의 지연 및 다수의 설계 변경 사항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구평1공장 담당자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공법 변경 및 고객사의 협의,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해결하여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납품 일정을 소화하였다.

FLNG는 친환경 시대, 미래 해양플랜트시장을 이끌어갈 신 개념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신 개념 선박을 개발, 신 시장을 개척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에 발주된 4척의 FLNG 중 3척을 수주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시장점유는 이 제품에 설치되는 핵심 장비를 무사히 납품한 선보유니텍 측에 기회가 될 것이다.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납기 기일에 맞추어 제품을 납품 완료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의 추후 FLNG LQM 발주 시 선보가 선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전망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준 선보Family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Special

장기근속자 Interview

구평1공장
이경식
기원

2020년 <SUNBO NEWS> 지면을 통해 장기근속자와의 인터뷰를 읽고 있다. 7월에는 구평1공장 이경식 기원이 입사 20년을 맞이하였다. 이경식 기원은 특히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모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입사 2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다.

Q A

01. 근속 20주년을 맞이하신 개인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입사일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0년 7월 3일이었으니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을 선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대 나이에 선보에 입사하여 많은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전투 스킵과 전화 한통으로 비밀 수 있는 언덕이 생겼지요. 이게 바로 '짬밥'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입사 20주년 이틀 전에 열린 선보 3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모범상을 수상하게 되어,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20주년이 될 듯합니다.

02. 선보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가장 좋았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20년이나 되다 보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한과 역경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해결하고 난 다음의 뿌듯함은 크게 마련이지요. 선보에서 일하는 매 순간이, 그리고 2020년 현재의 시간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03.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선보Family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동료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특히 우리는 '선보Family'로 이어져 더욱 끈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함께함에 늘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04. 10년 뒤 선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는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 선보 다닌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규모와 복지, 환경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보를 기대합니다.

"선보는 나에게 (식구)이다."

협력사를 가다

신광P&Tec



"상생협력의 본질은 소통, 결여 없는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신광P&Tec'은 1998년 12월 거제도에 설립된 '동아산업주식회사'를 전신으로 한다. 2013년 지금의 위치인 진주시 정촌면으로 사업장을 옮겼고 '신광P&Tec'이라는 이름을 걸고 새 출발을 하였다. 거제도에서 회사를 이전할 당시 일하던 핵심인력들이 모두 함께하였다. 주소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따라준 직원들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이다.

"핵심인력들이 모두 함께 옮겨 온 덕분에 현재 현장의 주요인

력, 반장급 직원들은 22년차 이상의 경력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직들 역시 평균 10년차 이상입니다. 선보공업은 수준 높은 품질과 납기에 대한 요구가 철저합니다. 우리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경력이 풍부한 고급인력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김형동 대표는 말 속에서 오랜 시간 회사의 버팀목이 되어준 동

료들에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신광P&Tec 선보와의 인연은 김 대표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거치며 최근 식 회장과 동료로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진주로 사업장을 옮기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2015년도부터 협력사로 일하고 있다. 선보는 완벽한 제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고품질, 공정수준, 납기일 등 업계에서도 요구 수준이 높다. 신광P&Tec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에서 얻은 실력을 바탕으로 설계와 공정이 까다로운 물건의 만족도를 높이며 최선의 결과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상생협력의 비결은 소통에 있다며 선보공업과의 소통에 결여되는 부분 없이 늘 원활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올해와 내년은 꽤 힘든 시기가 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직원들의 복지도 신경 써야 하는 등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스마트팩토링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것도 그 중 하나. 이미 도면전산작업화를 이루었고 지금은 현장의 스마트환경을 위한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신광P&Tec'은 바로 눈앞의 고난만을 보지 않는다. 김형동 대표의 의지가 굳건한 가운데 근로자 중심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보다 넓은 곳을 바라본다. '신광P&Tec'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알림 "팔로팔로 미!" 선보Family SNS 계정 오픈



인스타그램 계정 공식 오픈

인스타그램에서 "sunbo_family.official"을 팔로해주세요! 다양한 사내 소식 전달/외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선보Family 카카오톡 채널 오픈

카카오톡에서 "SUNBO FAMILY"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활발히 소통하는 선보Family가 되어요~

선보Family SNS

- 친숙한 방법으로 외부와 접촉하여 "친근한 선보" 이미지 구축
- 선보 행사 및 수상 내역, 공지 등 선보패밀리와 공유
- 외부 홍보로 대외적 이미지 향상
- 대외적 이미지 향상에 따른 구성원 자존감 향상 및 회사 이미지 향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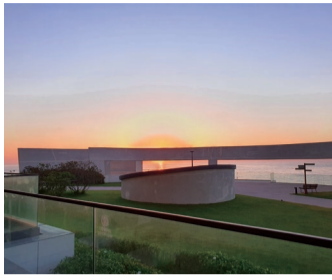
사내 복지

아난티코브 휴양 지원

올해 1월 1일자로 개선·시행되고 있는 선보복지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친화'이다. 복지제도 개선 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가 선보의 기업문화를 '가족친화적'이라 응답한 만큼 2020년 개선 복지제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 반영되었다. 가족과 함께 좀 더 특별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아난티코브 - 펜트하우스> 숙박 이용권 지급도 올해 도입되었다. 기장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테라스풀하우스)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최적인 '워터하우스', 이연복 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중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회원제 리조트이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월 2명의 임직원 가족이 50% 할인된 가격에 펜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월에는 품질보증 2팀 빈창민 계장과 설계4팀 이관중 대리가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혀, 가족과 함께 특별한 1박 2일을 보내었다.

일찍이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지향해온 우리 회사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온 어려운 시기임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뚝심 있게 기업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이 같은 행보가 선보패밀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어 회사생활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빈창민 계장

조선품질 경영부/품질보증 2팀

힐튼 수영장과 아난티코브 수영장을 양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쪽에 해안가 산책로도 좋아서 아침에 산책하며 일출을 볼 수 있는 점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달이 안 되어 송정해수욕장/대변항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송정 쪽은 저녁에 차가 많이 막히니, 앞으로 이용할 직원들은 이점 인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팁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저층은 일찍 Check in 해도 가능했었고, 고층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관중 대리

설계4팀/구조파트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었고, 특히 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즐거워서 워터파크 때문에 한 번 더 가고 싶을 정도네요. 워터파크는 야외와 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대시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고급 리조트라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마치 외국에 온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으로, 산책로도 아주 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도 좋았어요.

도네요. 워터파크는 야외와 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대시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고급 리조트라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마치 외국에 온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으로, 산책로도 아주 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도 좋았어요.

Travel

코로나19 팬데믹시대,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드라이브여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패키지여행이나 유명 관광지 위주의 여행을 대신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여행은 대안이 된다. 자가용은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준비와 여행 방법을 알아보자.

☑ 여행 계획 준비단계

- ① 준비물: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알코올티슈, 돗자리, 간편 도시락(김밥, 과일 등), 부채, 개인위생용품
- ② 드라이브 코스 정하기: 공원, 해안가 등 트인 심터가 있는지 확인. 음식점 환경 미리 확인
- ③ 개인위생 행동수칙 확인: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선별진료소 방문 시 여행이력 알리기
- ④ 지역 상황 확인: 사람이 물리거나 여행자 동선이 겹치는 장소 확인

☑ 여행 중

열이 있는 경우 일정을 취소한다. 간편 도시락을 준비하여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드라이브 코스 중간 중간 산책, 경치를 감상할 곳에서는 잠시 내려 즐긴다. 여행지의 식당을 이용할 때는 준비한 소독티슈로 사용할 자리를 닦아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을 실시한다. 가급적 자주 손을 씻거나 소독한다.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트인 야외를 위주로 다닐 것.

☑ 여행 마무리

열을 체크한다.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은 세탁한다. 여행일지를 작성한다.

추천 코스

7번 국도 옆으로 난 영덕의 해안도로

영덕 삼사리 해상산책로(해상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은 산책로) - 삼사방파제(방파제와 등대포구가 멋지다) - 동해대로를 탄다(7번국도) - 강구항 대게 마을 - 영덕대게로 300m 지나면 영덕해파랑공원(산책을 하고 소풍분위기를 내며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 - 걷기 300m, 카페봄(작지만 탁 트인 해안가 자리가 멋진 카페) - 영덕대게로를 따라 약 9km 정도 드라이브 후 영덕해맞이공원(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 본사	김재원(7.02) 정제현(7.07) 전성민(7.10) 유무성(7.17) 여재혁(7.19) 서장원(7.23) 정우권(음7.15)	최우호(7.06) 고지석(7.08) 이형재(7.14) 이옥렬(7.17) 장현우(7.23) 장철민(7.28) 박귀남(음7.16)
☑ 1공장	핀 두(7.08) 넬 슨(7.15) 홍봉걸(7.24) 조민길(7.29)	어준경(7.13) 박영호(7.15) 반호이(7.26) 김희규(음7.10)
☑ 2공장	최철환(7.06) 박을순(7.20)	송규찬(7.14) 정호경(음7.15)
☑ 3공장	강민(7.05)	
☑ 구평공장	추용한(7.03) 빅선(7.17) 김성민(7.18) 장린(7.27) 권오용(음7.07)	백(7.17) 엄태길(7.17) 표종원(7.20) 김건우(음7.02) 하보선(음7.11)
☑ 구평1공장	한승목(7.07) 김정현(7.15) 윤진수(7.21) 김상진(7.25) 김태경(7.29)	양무현(7.13) 이준직(7.20) 강래운(7.25) 박일동(7.25) 배희진(음7.21)
☑ 영암공장	정주경(7.03) 윤희준(7.06) 강보철(음7.25)	조성수(7.06) 다라카(7.30)

임사 기념일

☑ 본사	김도훈(7.01) 양혜진(7.01) 문종현(7.09) 서재욱(7.27)	사공운근(7.01) 권진영(7.06) 김의진(7.15)
☑ 1공장	강민구(7.01) 조바니(7.01) 심성섭(7.02)	김희규(7.01) 최광현(7.01)
☑ 2공장	최봉순(7.01) 정호경(7.20)	이경화(7.02) 김대훈(7.23)
☑ 3공장	석종현(7.16)	최광욱(7.25)
☑ 구평공장	반홍(7.01) 반소(7.06) 왕청해(7.17) 강화진(7.24)	이창복(7.01) 윤치호(7.09) 천병철(7.17)
☑ 구평1공장	김태운(7.01) 이경식(7.03) 강요안(7.11) 이호중(7.18) 김명환(7.21)	윤귀원(7.01) 박현철(7.10) 박인태(7.11) 김영욱(7.19) 박덕필(7.23)
☑ 영암공장	신용섭(7.18)	